

미얀마 다웨이 경제특구개발 현황

(2015. 12.)

양곤사무소

1. 개요

- 미얀마 최남단 타닌타리(Tanintharyi) 구에 위치한 다웨이 시는 인구 23만 명의 소규모 농·어업 도시
 - 다웨이는 방콕으로부터 서쪽으로 300km에 위치하며, 경제특구는 다웨이 시에서 북쪽으로 약 30km 떨어진 해안가에 조성될 예정
- 다웨이 경제특구의 전체 개발 부지는 서울 여의도의 약 68배에 이르는 197km² 규모로, 단일 특별 경제 구역으로는 아세안 최대
 - 경제특구 완성시 2045년까지 미얀마 전체 GDP의 5%를 생산할 전망
 - * 2014년 기준 미얀마 GDP US\$640억 (World Bank)

<미얀마 다웨이 지도와 경제특구 구상도>



자료 : 언론사 종합



*

2. 다웨이 경제특구의 중요성

- 인도·중동 수출을 위한 태국, 캄보디아, 베트남의 물류·생산 거점지
 - 태국 방콕, 캄보디아, 베트남 등 메콩강지역(GMS)의 남부와 연결되어 있어 3개국이 싱가포르를 우회하지 않고 인도양으로 접근할 수 있는 통로 역할

- 현재 **방콕**에서 **첸나이**까지 해상 운송에 **10일** 정도소요(4,590km)되나, 다웨이 경제특구를 통할 경우 **6일로 운송 기간 축소** 예상 (2,250km)
- **ASEAN 경제 통합**(2015년 발효)으로 공동체 국가 간 관세의 점진적 철폐가 추진되고 있어, 다웨이 경제특구는 국가 간 물류 육로 이동, 인도·중동·유럽으로의 해상 수출을 담당하는 **물류·생산 거점지**가 될 전망
- **태국 방콕**, **칸차나부리**와에 진출한 **한국·일본 제조업체**와의 **서플라이 체인 연계**를 통한 시너지 창출 가능

□ 특별경제구역으로서 다양한 세제혜택을 부여

<다웨이 경제특구 세금 혜택>

자유지역 (수출 시장 대상)	진흥지역 (내수 시장 대상)
초기 7년간 법인세 면제	초기 5년간 법인세 면제
이후 5년간 법인세 50% 면제	이후 5년간 법인세 50% 면제
3번째 5년간 재투자 발생 이익에 대한 법인세 50% 면제	3번째 5년간 재투자 발생 이익에 대한 법인세 50% 면제
5년간 결손금 이월	5년간 결손금 이월
주주의 배당소득세 면제	주주의 배당소득세 면제
근로자 교육 지출에 대한 과표 제외	-

3. 다웨이 경제특구개발 진행상황

- 2008년, ITD(Italian-Thai Development) 컨소시엄의 주도로 미얀마-태국 양국 간 다웨이 경제특구 개발 프로젝트 MOU를 체결하였지만 **자금 조달 어려움**으로 사업 연기
 - 2013년 11월, ITD 다웨이 경제특구 **전체 개발권**을 상실하였으며, 2014년 8월, 다웨이 경제특구개발 1단계 **TOR(Terms of Reference)** 제시
- **2015년 7월**, GMS 정상회담에서 **일본의 사업 참여 의사** 발표로 일본-태국-미얀마 MOU 체결, 현재 **1단계 개발 최종 계약**을 체결하여 개발 진행 중

<다웨이 경제특구개발 진행상황>

2008년 5월	미얀마-태국 다웨이 개발 MOU 체결
2008년 6월	ITD 컨소시엄과 미얀마 항구청(Ministry of Transport) MOU 체결
2012년 7월	미얀마-태국 新MOU 체결
2014년 9월	ITD 컨소시엄 다웨이 경제특구 1단계 개발 계획서 제출
2015년 8월	ITD 컨소시엄 다웨이 경제특구 1단계 개발 양허계약 체결 * 초기 전력발전 사업을 태국 에너지 공기업 EGCO와, LNG 터미널 사업을 Shell/LNG Plus와 계약 체결

- 현재 진행되고 있는 1단계 공업단지 개발 규모는 27km²로 총 75년간 (협약기간 50년 + 연장기간 25년) 개발·사용 예정이며, 공업단지는 A, B, C, D 지역으로 나뉘어 각각 7, 7, 7, 6km² 규모
- 다웨이 경제특구개발 1단계는 크게 7대 사업으로 나뉘며 전반적인 사업추진 미비
* 2015년 2월 기준
 - 선착장과 도로, 산업 단지, 타운쉽은 양허계약 이후 사업 진행 예정
 - 전력사업으로는 1MW 가스발전기만 설치 완료된 상태이며, 2014년 완공 예정이었던 33MW 가스 발전소는 구매활동이 전혀 없는 상황
 - 저수지 사업으로는 파야인뷰(Pa Yain Byu) 저수지와 정수처리장이 완공 되었으며, 하수처리장은 설계 단계

<다웨이 경제특구 1단계 개발 7대 사업>

사업명	사업 목표
1) 2차선 도로 건설	태국-미얀마 국경에서부터 다웨이 경제특구구간 도로 건설
2) 소규모 선착장 및 LNG 터미널	일반화물 정박장과 LNG 터미널 건설
3) 초기 산업 단지	배관, 전력 시설을 포함한 산업 단지
4) 소규모 전력발전소	임시 전력시설과 증발가스*(Boil-off gas)발전시설
5) 초기 타운쉽 및 거주 지역	거주시설 9동 건설 예정 (1동 720인 거주, 총 6,480인)
6) 소규모 저수지	1차 파야인뷰(Pa Yain Byu) 저수지 완공 2차 라잉가(Laing Gya) 저수지 건설 예정
7) 통신선	도로변 케이블선 설치 예정

* 증발가스 : -162℃초저온의 LNG 탱크 내 액체가 기화하며 생긴 가스, 이를 압축하여 발전소 연료로 활용

- 시설 공사를 위한 콘크리트 구조물 제작 시설과 이주자 재정착 마을, 채석장 등의 기타 시설이 이미 완비된 상태
- 다웨이 경제특구개발 사업의 환경·사회적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(EIA) 준비 단계
 - 다웨이 경제특구 개발로 발생하는 이주주민은 10지역 2,020가구에 이를 것으로 조사
 - 도로 공사료만 30-40가구 이주
 - *개발 초기 조사된 16지역 4,000가구보다 낮음
 - 이주민들을 위해 480여개의 주거지와 공공시설을 겸비한 바와 재정착 마을(Bawah Resettlement Area) 조성
 - 카렌 지역의 경우, 반정부 소수민족 무장 세력인 카렌민족동맹(KNU) 세력이므로 이주문제해결에 있어 각별한 주의 필요

<이주 해당 지역과 바와 재정착 마을 모습>



자료 : 미얀마 경제부

4. 시사점

- 다웨이 경제특구는 아세안 국가들의 인도양 진출을 위한 최적의 물류적 접근성을 제공, 장기적 성장 가능성이 높음
 - 특히 미얀마에 가장 부족한 심해항(Deep Sea Port) 개발로 중공업, 대규모 수출입 기지로서의 가치가 큼

- 일본·한국계 전자, 자동차 공장 밀집 지역인 방콕 및 칸차나부리와 육로로 연결되어 있어 시너지 효과 기대
- 다만 현재 개발은 초기 수준으로 **인구 부족, 인프라 부족** 등의 문제 해결이 시급
 - 1단계 지원 필요 인력만 10~20만으로 추산되지만 미얀마 남쪽 끝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상 노동 인구 유입이 제한적이며, 기존 공단 부재로 숙련공 부재 및 잠재 노동력 부족
 - * 타네타리 주의 전체 인구는 1.7백만 명으로, 이 중 다웨이 지역 인구는 79만 명, 다웨이 시에는 23만 명 거주
 - 2015-19년까지 임시 발전소 및 지역/국경 전력 이용을 계획하고 있으나 현지 전력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해결방안 필요
- 향후 지속적으로 일본-태국-미얀마 정부의 투자 계획 및 구체적인 투자 실행 등의 추이를 관찰하며 **한국 기업의 진출 가능성 및 투자 참여 가능성** 모색 필요
 - 특히 다웨이 경제특구는 심해항과 인프라 구축 완료 이후 투자처로서의 가치가 높아질 전망